



지상파DMB 사업계획서 제출

- 비디오채널 1, 오디오채널 2, 데이터채널 1개로 구성 -

한국의 뉴스 채널 YTN은 지난 2월 14일 오후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 즉 지상파DMB를 위한 사업계획서를 방송위원회에 제출했다. YTN DMB 법인 명의로 작성된 사업계획서는 첨부서류를 포함해서 약 5만 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으로, 3개의 서랍장과 하나의 플라스틱 박스에 담겨 제출됐다.

이 날 마감된 사업자 신청 접수에는 모두 10개 업체가 참여했다. YTN DMB를 비롯, 한국DMB, KMMB, 유큐브미디어, DMB코리아, 국민DMB플러스 등 6개 업체가 비지상파 사업자 군에서 3개의 사업권을 놓고 2대1의 경쟁률로 겨루게 됐다. 지상파 사업자 군에서는 KBS와 MBC, SBS, EBS 등 4개 업체가 참여해 1개사 탈락이라는 운명적인 경쟁을 벌인다.

YTN DMB는 이번 사업계획서에서 모두 4개의 채널을 구성했다. 각각의 채널은 비디오채널이 'YTN플러스', 오디오채널은 'TBN교통방송'과 'Satio플러스', 또 데이터채널은 'YTN 프리미엄'으로 명명됐다.

비디오채널 YTN플러스는 신속한 뉴스에 유익한 재미를 더한 인포테인먼트 채널로 채널 콘셉트를 정했다. 정시마다 생생한 뉴스를 제공해 온 YTN 채널의 장점을 살리고, 젊은이들이 즐겨찾게 될 이동방송의 특성을 감안, 다양하고 재미있는 정보오락 프로그램을 강화한 유비쿼터스 채널을 지향하고 있다. 어떤 프로그램을 보고 있더라도 뉴스 속보와 주요뉴스, 날씨정보 등 주요 정보를 연동형 데이터 서비스로 제공해, 시청자들의 정보 욕구를 채워준다는 계획이다. 또 휴대폰형 단말기에서는 사회이슈에 대한 시청자들의 의견도 실시간으로 수집, 다양한 방송 표현을 계획하고 있다.

이미 전국 7개 도시에서 교통방송 운영 경험을 쌓아 온 TBN이 제공하는 오디오채널은, DMB의 앞선 기술 환경에 맞는 문자 교통정보와 현장 영상까지 실시간으로 제공, 새로운 차원의 교통방송을 선보인다. 특히 TBN은 이를 위해 5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 교통정보를 종합 관리하는 통합교통정보센터(가칭)를 설립할 계획이다. 여기서 생산되는 교통정보는 오디오채널 TBN교통방송 뿐 아니라, 데이터채널을 통해 프리미엄



▲ 황명수 DMB추진팀장이 YTN DMB 사업계획서를 방송위원회에 제출했다.

서 쟁쟁한 경쟁력을 갖춘 업체들이다. 또 서울시와 경기도, 경찰청, 기상청 등 각급 정부기관과 온미디어, 씨네21 등 콘텐츠 경쟁력을 갖춘 업체들이 비디오와 오디오, 데이터방송 콘텐츠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DMB시대를 앞두고 계속돼 온 설문조사들은 한결같이 DMB 최고의 인기콘텐츠로 '뉴스와 보도'를 꼽고 있다. 이는 한국 최초의 뉴스 전문 채널 YTN이, YTN DMB를 통해 모바일 방송 시대에 가장 사랑받는 방송으로 도약할 수 있음을 예고하는 일이다.

방송위원회는 각 사업자 대표들의 청문회를 거쳐 3월 중에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교통정보 TPEG 서비스로도 제공될 예정이다.

이미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30개 채널의 음악전문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Satio는 'Satio플러스'라는 이름으로 DMB전용 음악방송 시대를 연다. 여기선 음악만 듣던 기존 FM라디오와 달리, 현재 듣고 있는 노래의 곡명과 가수는 물론 가사까지 볼 수 있게 된다. 라디오 방송에서 흔히 등장하던 전화 연결 대신 단말기 화면에 문제를 내고 즉석에서 푸는 음악퀴즈 등 새로운 차원의 청취자 참여방송도 계획하고 있다.

독립형 데이터방송 YTN프리미엄에선, 더욱 새로운 경험이 시작된다. 실시간 뉴스나 날씨 정보는 물론 재미있는 유머나 교육, 영화, 취업 등 다양한 정보가 압축 제공돼 시청자 맘대로 꺼내볼 수 있다. 값비싼 통신요금에 따라붙던 무선인터넷과는 차원이 다르다. 미아 찾기 같은 공익 서비스가 기본으로 제공될 뿐 아니라, 특히 YTN플러스의 정시 뉴스 기사 전문을 뉴스가 끝나는 즉시 제공한다는 차별화 전략을 세우고 있다.

YTN DMB의 이런 방송 계획에 힘을 모은 업체와 기관들은 모두 50여개에 이른다. 컨소시엄 지분 투자로 함께 한 업체가 26개로, YTN과 TBN, 경남기업, 지어소프트, 소프텔레웨어, 에이스테크놀로지 등 각 분야에



▲표원수 사장이 YTN DMB 사업계획서를 최종 점검하고 있다.



▲YTN DMB는 2월 2일 콘텐츠 강화를 위해 독립 제작사 중심의 ANTV컨소시엄과 통합 조인식을 가졌다.

2월호 목차

- 121 ▶ 개국10년 기획시리즈 - YTN에 바란다②
- ▶ 세계속의 YTN - 통신원에게 듣는다②
- 131 ▶ 시청자 리포트 - 남극에서 보는 유일한 한국어 방송 - YTN
- 141 ▶ 특집 '디지털의 미래' 제작기 - 새로운 패러다임 디지털 ▶ 특별 기고 - 여론조사 속의 YTN
- 151 ▶ 새해 새 얼굴 - 공채 9기
- 161 ▶ 사내논단 - 언론사 데스크들의 YTN 평가
- 171 ▶ 파워 인터뷰 - 해외사업팀 2인 YTN을 세계적인 콘텐츠 프로바이더로
- 181 ▶ 프로그램 탐방 - 재외동포 뉴스

개국10년 기획시리즈 - YTN에 바란다②

“언론의 사명이 늘 살아 숨쉬는 방송되어야”



유삼렬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

케이블TV가 방송 서비스를 개시한 지 올해로 10년째다.

10년 전인 1995년 당시 뉴미디어라는 기치로 케이블TV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모토는 다채널 영상 서비스와 더불어 YTN과 같은 24시간 방송편성을 통해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맞춤형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4개의 지상파 방송사

가 하루 8시간 남짓 온 가족이 모이는 저녁시간대를 이용한 방송이 고작이었던 당시로서는 실로 신선한 충격이 아닐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문화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당시 모든 채널이 24시간 편성을 하기엔 역부족이었지만 한국의 CNN을 표방했던 YTN으로서는 24시간 편성이 채널의 생명과도 같았다. 그러나 아무리 순환 편성을 한다고 해도 당시의 여건으로 24시간 뉴스를 제작해 방영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터였다. 무엇보다 언론에 대한 사명감과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 사회의 구석구석을 보살피는 기자정신이 아니었다면 결코 이뤄 낼 수 없는 일이었다.

한때 IMF라는 큰 파고 속에서 대기업의 자본들마저 PP사업을 하나 둘 접고 케이블 업계를 떠날 때도 YTN은 기자들의 값진 희생과 경영진의 발 빠른 위기관리로 어려움을 헤쳐 나와 국내에만 1,200만 가입가구를 보유하는 등 지상파의 위력에 맞먹는 현재의 금자탑을 쌓아 올릴 수 있었다.

‘돌발영상’과 같은 신선한 기획은 물론 철저한 기자정신으로 남아낸 수많은 특종들이 YTN의 현재를 빛내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24시간 뉴스 전문 채널로의 위상을 확고히 한 YTN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지난해 신 사옥 이전을 정점

으로 새롭게 변화하는 방송환경에 주도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더욱 믿음직하다. 방송시스템의 순조로운 디지털 전환을 비롯해 해외 교민을 위한 뉴스 서비스 실현, FM라디오 방송과 DMB서비스의 추진 등은 향후 10년 후의 YTN모습을 그리는데 충분한 현재의 다양한 노력들이라고 보고 있다.

미디어 전쟁이라고 불릴 만큼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이렇듯 YTN이 다양한 사업의 다각화를 통해 내실 있는 경영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그 어떤 순간에서도 시청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쌓아올린 보도채널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기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용해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정한 잣대로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까지 YTN이 담당해야 할 범위라고는 점을 기자를 포함한 종사자 모두는 가슴 깊이 새겨두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케이블TV10년의 금자 탑속에서 우뚝 솟아 있는 YTN의 공적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사를 보내며, YTN의 무궁한 발전과 영광을 기원하는 바이다.

세계속의 YTN - 통신원에게 듣는다②

동포사회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할 터



조훈희 캐나다 밴쿠버 통신원

한국에서 무역회사를 1년쯤 다녔던 나는 자의 반, 타의 반으로 2000년 8월에 부모님을 따라 캐나다 밴쿠버로 이민을 오게 되었다. 한국을 떠나면서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일을 찾으리라’고 굳게 다짐하였다. 한국에서 신문 방송학을 부전공으로 공부했으므로, 이곳 대학에서도 별 고민 없이 신문 방송학(Communications)을 전공으로 선택했다. 이렇게 학교를 다니다 우연한 기회에 한인방송국 ‘TV Korea’에서 리포터로서 일할 수 있게 되었다. 나에게 주어진 우연한 기회이지만 너무 기뻐다.

‘잘해보리라’라는 굳은 다짐으로 드디어 첫 촬영!

경험이 전혀 없었던 터라大本대로 읽어갔으며, 정신이 없는 가운데서 실수 없이(?) 촬영을 끝냈다. 촬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나는 운명적으로 ‘야! 바로 이 일이 내가 평생 동안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하는 일이구나.’라고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운명적인 나의 리포터로서의 생활은 시작되었고, 낯선 사람들과

만나서 그들의 삶과 생활을 얘기하고 또 전하면서 오히려 내 자신을 깨닫게 되고 더불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2004년 5월, 본국의 YTN과 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방송하는 ‘YTN인터내셔널’의 밴쿠버 통신원으로 선발된 것이다. 캐나다에 사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등 다양한 형태로 그들의 삶을 전한다는 사실 자체가 내게는 큰 자부심을 갖게 하였다.

다만 이런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에도 시련은 있는 법! 이곳의 한인들은 인터뷰 요청 시 캐나다 현지인에 비해 다소 소극적이기 때문에 사건을 취재하고, 그곳에서 기사를 발췌해야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는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상대적으로 캐나다에 거주하는 상당수의 백인(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캐나다 인이라고 하는 백인: 참고로 캐나다는 다민족이민 정책으로 백인의 비율이 40%선)은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공식적인 자리에서(특히 방송이나,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말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이고 호의적이 편이다. 이런 점들이 한인들과 차이가 있으므로 내게는 좀 힘든 일이었다.

많은 에피소드가 있지만 그 중 나를 곤혹스럽게 했던 경험이 있었다. 이번 취재는 캐나다 대학에 미국인 유학생 증가에 대한 내용으로 미국국적의 미국인 대학생

과의 인터뷰를 해야 했다. 어느 때처럼 캐나다 대학 내에 유학을 하는 미국인 대학생을 섭외하고 촬영 시간을 약속하고 헤어졌다.

그러나 그 학생은 촬영전날, 인터뷰를 할 수 없다고 전화를 했다. 이런 황당한 때가... 바로 다음날 촬영을 해야 했었는데 하늘이 노랗게 변한다는 것을 그때서야 실감하게 되었다. 급하고 당황스러운 마음을 가다듬고 교내에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당시 미국인 입니까? 이런 식으로 일대일로 물어보기를 수십 번! 결국 찾지 못한 채 학교 측에 촬영과 섭외를 부탁했다. 그 다음 날 학교 측에서 세 명의 학생이 인터뷰를 허락했다고 연락이 왔으며, 다른 촬영에 필요한 도움도 주겠다고 해서 무사히 촬영을 마친 적이 있다. 얼마나 기뻐는지 이루 말할 수 없다. 사례를 찾지 못했던 그 불안함과 답답함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이다. 일을 해결한 다음의 후련함이란 정말 맑은 공기와 같다.

YTN의 리포트를 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특히 YTN의 해외방송팀원들과 일하는 것이다. 한국에 있으면서도 얼마나 신경을 써주시는지, 마치 캐나다의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는 것처럼 가깝게 느껴진다. 지금까지 정신없이 YTN 리포트를 해오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캐나다 동포사회의 정보를 좀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리포터가 되고 싶다.

게시판

■ 입사

김혜진 마케팅국 1. 24 / 신현민, 장병일, 김솔희, 김선미 경영관리국. 이승윤, 김석순, 권준기, 고한석, 이만수, 전주형, 이선아, 구수

본, 이지은, 김종호, 김욱, 이강진, 고재형, 이상은, 광영주, 강영관, 원인식, 최지환, 우영택, 강덕천, 서정호 보도국. 송병준, 이은영, 홍도영 기술국. 황의업 마케팅국 1. 24 / 박종혁 보도국 2. 3 / 정지영, 윤서연 국제부 2. 3

■ 퇴사

권선희(국제부) 1. 10 / 김욱(보도국) 2. 2

■ 전보

강흥식 방송심의부장 감사실 감사위원 (1.24~3.31) 1. 24

■ 부음

김승환 편집1팀장 부친상 1. 11 / 김범환(광

주지국) 부친상 1. 21

■ 결혼

이경준(제작기술부) 1. 15 / 최동호(스포츠부) 1. 29

시청자 리포트 - 남극에서 보는 유일한 한국어 방송 YTN

지구촌이란 말을 느끼게 해준 YTN



1988년 2월 17일에 창설된 남극 세종과학기지는 지구상 유일의 천연 과학 실험장인 남극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응용과학 연구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남극의 여름철인 11월 중순에서 1월말까지 50여명에 이르는 하계 연구원들이 체류하며, 하계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기지의 모든 시설물을 운영·관리하기 위해서 월동대원들이 일년 동안 체류합니다. 월동대원들은 전문경력, 전공실기, 건강검진, 그리고 인성검증 등을 통해 엄격하게 선발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맡은 임무에 대해서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합니다.

현재 18차 월동대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기지대장, 총무, 연구원 3명, 기상대원 2명, 주방장, 의사, 그리고 시설유지반원 7명 등 기지운영에 필요한 최소인원인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바쁜 일과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지의 시설물들에 대한 개보수 공사가 많고, 신규로 갖가지 시설물들을 설치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처음으로 과학교사 및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한 극지체험단이 열흘 이상 기지에서 체류하는 등 세종기지를 출입한 인원이 예년에 비해 훨씬 많았기 때문입니다.

척박한 땅 남극에서도 세상의 어느 곳처럼 여름에는 새생명들이 탄생합니다. 기지 주변에서 쉽게 관찰되는 일명 도둑갈매기라고 하는 스쿠아(Skua)는 물론 인근에서 집단으로 서식하는 펭귄들도 알을 낳고 차디찬 땅에서 부화한

새끼들을 키웁니다. 하지만 여름이 끝나고 겨울이 닥치면 그동안 우리 곁에서 친구가 되어 주었던 스쿠아도 펭귄들도 어디론가 떠나버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된다는 신호입니다. 그때부터는 계속되는 폭풍설과 혹독한 기상으로 야외

활동도 거의 할 수 없게 되며, 여름의 백야와는 반대로 겨울의 하루는 대부분이 밤이기 때문에, 대원들은 자칫 심리적으로 위축되면서 불안정한 상태가 오게 됩니다. 며칠간 초속 30-40미터로 몰아치는 폭풍설에 기지건물들이 들썩일 때면 잠을 설치게 되고, 몇 평되지 않는 생활공간은 때로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해집니다. 건물 밖 전경은 온통 백색의 무채색이지요. 이때부터는 백색세계의 경이로운 풍경보다는 한국의 푸른 숲들이 그리워지면서, 점차 커져만 가는 외로움과 고독감을 이겨내기 위해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사소한 것에도 희로애락의 감정이 증폭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대원들이 의지하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가족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이 나를 기다려 준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큰 힘이 되지요.

그리고 폭풍설 속에서도 태극기가 휘날리는 대한민국 남극 세종과학기지를 우리가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과 애국심 또한 난관을 극복해나갈 수 있는 의지가 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극기의 한계가 오기도 합니다. 지난 1999년 이후 세종기지에서 인터넷이 개통되면서 가족들과의 교신이 훨씬 용이해져서 겨울철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의 속도는 한국에서보다 30배 정도 느리고, 기상 상태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때론 오히려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하기도 합니다.

지난 1월 13일 오전 11시 50분경, 우리 대원들의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IT강국에 걸맞게 월동대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올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협조로 위성안테나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위성신호를 잡기 위해 직경 4.2미터에 달하는 위성안테나의 방향과 각도를 미세하게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기지 내 방송을 통해서 한국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한껏 고무되어 있던 대원들에게 드디어 한국어 방송인 YTN이 모니터에 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TV에 나오는 방송은 분명 한국어로 방송되는 YTN 방송이었습니다. 기지 창설 이후 유일한 통신수단이었던 위성전화로만 한달에 한번 가족의 안부를 묻던 시절을 세종기지 1세대라고 한다면, 인터넷이 개통된 2세대를 거쳐서, 이제 한국어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3세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YTN 위성방송의 세종기지 개통 기념으로 YTN과 인터뷰를 하게 되었고, 실시간으로 그 인터뷰 장면을 TV를 통해 시청한 대원들의 반응은 이제 지구촌이라는 말을 절실히 실감하게 되었다는군요. 그렇습니다.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의 끝에서, 한국에서 정확히 1만 7천 240킬로 떨어져 있는 이곳 세종과학기지에서 한국어 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휴식시간에는 어김없이 YTN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터넷을 통해 접했던 고국소식이 아닌, 위성방송을 통해 눈과 귀로 고국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캄캄한 겨울에 대원들이 겪게 될 외로움과 고립감을 훨씬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과학기술 발달이 이곳 남극에서는 항상 긍정적인 혜택만을 주지는 않습니다. 희망의 을유년 새해에는 YTN을 통해 방송되는 고국소식들이 가슴이 답답해지는 뉴스보다는 즐겁고, 통쾌하고, 아름다운 소식들로 꽉 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희망의 편지를 이곳 남극 세종과학기지에서 띄웁니다.

홍성민
18차 남극 세종과학기지 대장



YTN단신

공채 9기 사원 입사



지나해 11월 30일 원서접수를 시작해 필기, 오디션, 면접, 인턴십 등 2개월여의 전행과정을 거친 29명의 신입사원이 1월 24일자로 최종 선발됐다. 직종별로 방송기자, 촬영기자, 그래픽, 방송기술, 방송경영, 마케팅 등이고 근무처별로 본사 21명, 지국 8명이다.

YTN 서울타워 새 단장 공사



YTN 서울타워가 새 단장 공사에 들어간다. 서울타워는 이번 공사로 3월1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전망대와 입주 상가(일부제외)의 영업이 중지되고, 송신탑 기능은 지속된다. 서울타워는 관광환경 변화와 고객의 새로운 기호에 맞춰 한층 업그레이드된 관광명소로 새롭게 단장될 예정이다.

제 1회 '일월성배' 한·중 바둑대회



YTN과 한국 기원이 후원하고 중국 바둑협회와 CCTV가 주최하는 제 1회 '일월성배' 한중 바둑대회가 2월 3일 베이징에서 개막됐다. 한국과 중국에서 5명씩의 프로 기사가 참여하는 이 대회는 양국을 3번 오가며 25차례의 대국으로 승부를 가른다. 한국은 유창혁과 최철한, 박영훈, 송태곤, 김성룡 등이 나오고, 중국에서는 저우허양, 왕레이, 뤼시허, 후야오위, 왕시 등이 출전한다.

제8회 전국대학생 영상공모전 시상식



YTN과 경기도가 공동 주최한 제8회 전국대학생 영상공모전의 시상식이 2월 17일 YTN 대회의실에서 있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41개 대학에서 총 78점이 출품되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경기도 지사가 수여하는 영예의 대상은 청운대학교 방송영상산업학과 4년의 윤상현외 4명이 제작한 "내 발아래 세상"이 차지했다.

특집 '디지털의 미래' 제작기

YTN

새로운 패러다임, 디지털



김원배 차장(경제부)

장면1

1월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입국심사대.

9.11 테러이후 미국 입국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졌다는데 어떻게 하나한 번 보자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서 있는데 이민국 직원들 앞에 놓여 있는 모니터 뒷면의 SAM-SUNG 이라는 커다란 글씨가 눈에 확 들어온다.

‘음~ 역시 삼성이야’

하는 생각이 끝나지도 않을 순간 백인 여자가 오라고 한다. 미국에 왜 왔느냐고 묻길래 국제 가전 전시회(CE SHOW) 보러 왔다고 하니 직업이 뭐냐고 묻는다. TV Reporter라고 하니 명함을 내놓으란다. 그러고는 비자를 보더니 왜 I visa(취재비자)를 받아오지 않았느냐고 따지기 시작하면서 무려 10분 이상을 괴롭힌다.

테러용의자(?)로 찍히지 않기 위해 잘하지도 못하는 영어로 그 입국심사관 하고 대적(?)하느라 온 몸이 땀에 젖었다.

장면2

1월9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국제공항.

저녁 8시 반 비행기로 샌프란시스코로 가서 하루 일찍 떠난 프레스투어단과 합류해 인천행 비행기를 타도록 돼 있었다. 느긋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예정된 탑승 시간이 됐지만 비행기가 보이지 않는다. 늦게 출발한다는 방송이 흘러나오고 다시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탑승구가 바뀌었다는 방송이 나온다. 순식간에 탑승구 앞은 이수라장이 되면서 너나없이 뛰기 시작한다. 한참을 달려 바뀐 탑승구에 도착해보니 전광판에 OVERSOLD 라는 글씨가 적혀 있다. 탑승 포기자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 제안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일부 좌석이 중복돼 늦게 비행기에 오른 사람은 다시 내려야 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결국 비행기는 당초 출발 예정시간에서 2시간 반이 지난 밤 11시에야 라스베이거스 공항을 이륙할 수 있었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환승 비행기를 타지 못하게 된 홍콩 젊은이가 이것이 American System 이냐고 거칠게 항의하던 모습이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

장면3

1월10일 0시 10분 비행기가 샌프란시스코 공항 국내선 터미널에 도착했다.

01시에 떠나는 인천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이번에는 국내선 터미널에서 국제선 터미널로 달려야만 했다.

가까스로 프레스투어단과 합류했지만 결국 인천행 비행기를 탈 수 없었다. 라스베이거스 공항에서 부친 짐이 내가 타고 갈 비행기에 실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새벽 2시. 짐을 찾기 위해서 나는 다시 국내선 터미널로 달려가야 했다. 정말 간발의 차이로 화물 담당자를 만나 자초지종을 들으니 대답이 가판이었다.

모든 국제선 비행기가 이미 출발한 줄 알고 짐을 옮겨 실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가 내민 호텔 1박 무료 숙박권이 내가 받은 보상의 전부였다.

이번 라스베이거스 국제 가전 전시회를 취재하면서 나는 막연하게만 느꼈던 디지털의 위력을 현장에서 실감할 수 있었다. 우리는 흔히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한다는 표현을 사용한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한 전환이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라는 사실을 절감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성공신화를 만든 삼성과 LG의 통찰력은 아무리 칭찬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디지털의 시대 한국 기업들이 하드웨어에서 성공을 만들어 가고 있다면 한국은 이제 소프트웨어에서도 성공신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지금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사회적 갈등의 상당 부분도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현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사회가 얼마나 적은 비용으로 얼마나 빨리 이 갈등을 해결하고 디지털에 걸맞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느냐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특별기고

YTN

여론조사 속의 YTN



신중식 (리서치앤리서치 정치사회본부 연구원)

여론조사와 언론

90년대 이후 정치사회의 점진적인 민주화로 인해 정치권력은 언론과 시민단체의 감시와 통제로부터 더 이상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감시자에 대한 감시'도 사회적인 의제로 대두되면서 언론에 대한 시민적 통제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이에 대한 제도마련도 조금씩 갖추어지고 있는 추세다.

한편, 각급 여론조사기관에서도 언론을 평가하는 각종 여론조사가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언론평가조사로 대표적이고 널리 알려진 것으로 시사저널이 89년 이래 매년 실시, 발표하는 매체 영향력 조사를 꼽을 수 있겠다. 이 조사는 매체 영향력, 매체 선호도, 영향력 있는 언론인 순위 등을 통해, 언론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수용자 비평에는 아직 인색한 우리 언론이 조금 더 독자와 시청자의 시선을 느끼고 성찰과 도약을 모색하는 좋은 계기가 될 만하다. 리서치앤리서치가 작년 12월 월례조사를 진행하면서 언론의 신뢰도 조사를 시행한 것도 비슷한 문제의식의 발로였다고 할 수 있다.

시사저널-리서치앤리서치 조사 비교

그렇다면 시사저널-미디어리서치 조사와 리서치앤리서치 조사에서 나타난 차이와 공통점은 무엇인지 잠깐 짚어보도록 하자.

첫째는 기준의 차이이다. 시사저널-미디어리서치 조사와는 달리 (체감)영향력이 아니라 (체감)신뢰도를 기준으로 삼았다. 언론사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매체수용자들의 체감 신뢰도를 기준으로 삼아 줄 세우기(?)를 시켜 본 셈이다. (엄밀한 의미의 매체 종합 신뢰도 조사는 아니다. 신뢰도를 다방면으로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측정항목이 동원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라는 설문 도입 문안이 말해주듯 응답자의 체감 신뢰도 조사라고 간주하면 되겠다).

둘째로 조사방법상의 차이가 있다. 시사-미디어 조사는 10개 분야 전문가 대상 조사였던 반면, 리서치앤리서치는 무작위추출에 의한 전 국민 대상 전화조사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조사 결과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사실 언론의 사회적 영향력은 본질적으로 신뢰도 높은 정보를 제공하는 데서 기인하는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두 기관에서 시행한 조사가 보여주고 있는 경향성(tendency)는 거의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KBS가 1위를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조선일보와 MBC가 경합 중이며, 이를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메이저 신문사가 3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것, 두 조사에서 중앙-오마이뉴스-한겨레-SBS 순서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외에도 인터넷 언론의 약진이라는 점 역시 두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경향이였다.

다만 두 조사를 비교할 때 조선일보와 MBC의 순위 바뀔과 신뢰도 조사에서 YTN이 조금 더 상위 순위권으로 전진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

두 조사에서 서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YTN의 포지션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거칠게 말하면 한마디로 영향력이라는 면에서는 비록 뒤쳐지지만 신뢰도라는 면에서는 못지않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여론조사 속의 YTN

YTN은 이번 시사저널-미디어리서치 조사에서 처음 10위권으로 진입했다. 한편, 리서치앤리서치 조사에서 YTN은 KBS, MBC, 조선일보, 동아일보에 이어 신뢰도 5순위를 차지했다. 5대일간지도 아니고 3대 공중파도 아닌 케이블 뉴스전문채널 YTN의 약진은 인상적인 것이었다. 언론에 대해서 과묵한지라 YTN의 부상원인이 무엇인지 필자는 모른다. 그 대답은 YTN을 만드는 사람이 알고 있을 것이다. 돌발영상 등 뉴스를 새롭게 가공해 전달하려는 시도, 뉴스전문채널이라는 고유의 포지션, 인터넷과의 결합 등 매체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맞서려는 자세들이 그 여러 원인들의 면면이 아닐까 짐작할 뿐이다.

사회적 영향력이란 것은 원래 공정정보를 통한 신뢰도 제고를 통해 비로소 가능하다는 상식을 상기해 보면 언젠가 YTN이 한국사회에 끼치는 영향력도 역시 커질 것이라고 믿는다.

乙酉年
"새해 새얼굴"
공채 9기

신 현 민 (78. 4. 24)
서강대 경영학과
방송경영



YTN이 더욱 권위있고 경쟁력 있는 방송사가 되는 데 한 몫 하고 싶습니다. 9기 동기 여러분 화이팅!!

장 병 일 (78. 3. 29)
한국외대 법학과
방송경영



slow & steady.. wins the race!

김 솔 희 (81.11.15)
성균관대 법학과
방송경영



저와 YTN 상생의 길을 위해서 저는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설렘, 자신감, 높은 의욕, 그리고 약간의 조심스러움.. 이러한 마음들을 끝까지 잃지 않고 제게 주어진 일들을 모두 소중히 여기면서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해 나갈 것입니다.

김 선 미 (81. 10. 13)
송실대 경영학과
방송경영



저를 뽑아주신 사장님 이하 모든 선배님께 감사드립니다.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진 만큼 이제는 있어야 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이 감사함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항상 열심을 다하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이 승 윤 (78. 7. 16)
연세대 심리학과, 독어독문과
방송기자



어릴적부터 저의 꿈은 꿈은 소리와 바른 소식을 전하는 기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YTN 9기 방송기자 합격은 이러한 꿈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와 그 구성원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한결같이 지켜가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김 석 순 (78. 7. 14)
고려대 한국사학과
방송기자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꾸준하게, 끈질기게, 우직하게 노력하겠습니다. 뿌리가 깊고 줄기가 튼튼한 거목이 되어 YTN을 든든히 받치는 기둥이 되고 싶습니다. 이 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뉴스를 만들고 싶습니다.

권 준 기 (78. 5. 9)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방송기자



발로 뛰고 가슴으로 생각하는 기자, 사람 냄새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고 한 석 (78. 8. 13)
성균관대 철학과
방송기자



YTN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인정받는 기자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만 수 (78. 1. 31)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방송기자



"당신의 꿈이 바로 YTN의 꿈이다!" 라는 어느 선배의 말을 들으며 가졌던 그 떨림과 자부심,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전 준 형 (78. 7. 16)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방송기자



기자라는 직함이 주는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이를 석자보다 기자라는 직함이 부끄럽지 않은, 그런 기자가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 선 아 (79. 8. 3)
서울대 불어불문학과
방송기자



방송은 팀플레이, 환상의 팀워크를 느껴 보고 싶습니다.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팀의 일원이 되겠습니다.

구 수 분 (79. 8. 23)
한국외대 불어불문학과
방송기자



섬없이 공부하는 기자, 소리 없이 강한 기자가 되겠습니다.

이 지 은 (81.4.15)
서울대 동양사학과
방송기자



사원중에 적힌 '기자' 이라는 글씨가 지금도 실감이 나지 않아 하루에 수차례씩 들여다봅니다. 백 마디 말보다 한번의 행동으로 저를 보이겠습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되, 있는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는 기자, 바로 제가 꿈꾸는 YTN 이자은 의 모습입니다.

김 종 호 (76. 4. 5)
부산대 영어영문학과
방송기자(부산)



항상 낮은 곳에서 살면서 봉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시청자의 눈과 귀가 되어 대통령에게도 굽히지 않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박 종 혁 (74. 1. 12)
경남대 경영학과
방송기자(창원)



빛가 소금이 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이 강 진 (77.7.6)
연세대 경영학과
방송기자(춘천)



벼랑 끝에 서있던 저에게 손을 내밀어 준 YTN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를 갖고 영리하게 발로 뛰는 YTN 기자가 되겠습니다.

고 재 형 (78. 7. 1)
성균관대·정치외교학과
방송기자(제주)



우선 제 사회생활의 시작을 YTN과 함께 하게 되서 무척 기쁩니다. 그리고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열심히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 은 (75. 3. 2)
건국대 기계항공우주공학부
촬영기자



조만간, 가장 신뢰하는 언론매체 여론조사에서 YTN이 당당히 1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9기 동기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자아자!

곽 영 주 (77. 3. 13)
경희대 신문방송학
촬영기자



최고로 열심히 뛰는 촬영기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뉴스촬영의 달인이 되겠습니다.

강 영 관 (73. 1. 25)
광운대 신문방송학과
촬영기자



합격했을 때 가졌던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균형 잡힌 가치관으로 세상일을 기록해 나가는 열정이 가득한 촬영기자가 되겠습니다.

원 인 식 (77. 10. 09)
충북대 지구환경과학과
촬영기자(청주)



YTN의 일원이 되어 뉴스를 만들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좋은 뉴스 영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최 지 환 (77. 3. 24)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촬영기자(전주)



가슴에 YTN이라는 마크를 새기고 취재할 때 당당하게 YTN의 진면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항상 초심을 잊지 않고 회사를 대표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우 영 택 (77. 5. 19)
명지대 기계공학과
촬영기자(춘천)



아마추어의 때를 벗고 선배님들 밑에서 열심히 가르침을 받아 진정한 프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 덕 천 (78. 12. 14)
홍익대 시각디자인과
그래픽디자인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 최선을 다하는 YTN 큰 일꾼이 되겠습니다!

서 정 호 (78. 2. 13)
단국대 시각디자인학과
그래픽디자인



Dynamic Korea시대에 Dynamic YTN시대를 만들겠습니다. 선배님들, 당찬포부의 9기 모두를 지켜봐 주십시오. 소리는 Minimum이지만 맛은 Maximum인 9기 서정호

송 병 준 (79.12.26)
동국대 전자공학과
방송기술



지금 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은 영 (80. 11. 10)
아주대 정보및컴퓨터공학부
방송기술



YTN의 일원이 된 만큼 YTN인으로서, 그리고 기술인으로서 계속 발전해가고, YTN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홍 도 영 (77. 9. 1)
강릉대 전자공학과
방송기술(강릉)



24시간 시청자들과 함께 숨쉬는 디지털 세상의 중심 YTN에서 최선을 다하여 저의 젊음을 펼쳐 보겠습니다.

황 의 엽 (81.10. 3)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마케팅



간절히 원하던 YTN에 입사하게 되어 기쁩니다. 머리 좋은 것이 발 좋은 것만 못한 법입니다. 앞으로 말은 일에서 생각보다는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언론사 데스크들이 가장 많이 보는 YTN

- 신뢰성·속보성 높이 평가, 게이트키퍼에 유용 -



류희림 제작1팀장

1. 문제의 제기

오는 3월 1일 정오가 되면 한국 최초의 24시간 뉴스 채널 YTN이 공식 방송을 시작한지 꼭 10년이 된다. 10년 전 불과 20-30만 가구밖에 되지 않았던 YTN 시청가구수는 1천만가구를 훌쩍 넘어선지 이미 오래다. 실제 YTN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은 매일 매일 발표되는 시청률에서 증명된다. 그러나 일반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한 시청률 조사에서 YTN은 늘 손해 보는 느낌이다. 여론을 이끄는 사회 각계각층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확연히 드러나듯이 오피니언 리더들이 가장 많이 보는 채널인데도 가정을 벗어난 곳에서의 시청률이 조금도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일반 시청자들과 달리 정보의 흐름에 민감한 오피니언 리더들이 YTN을 많이 보고 있다는 사실은 YTN을 통해 전해지는 뉴스가 미치는 영향력이 그만큼 커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들 오피니언 리더들 가운데서 직접적인 여론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문과 방송사 등 언론사 뉴스 데스크들(방송과 신문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시청자나 독자들에게 전달 할 주요뉴스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차장급 이상의 간부들로 총칭해서 데스크로 칭하기로 한다)은 YTN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또 YTN을 어느 정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오래전부터 가져왔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조사해보기로 했다.

2. 조사 방법

YTN이 이른바 뉴스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 언론사 뉴스 데스크들로부터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있느냐의 문제는 YTN의 대외적인 공신력과 관련해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기 때문에 조사 대상 언론사 선정과 설문지 작성에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난해 10월22일부터 1주일동안 2003년 한 해 동안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상위 4개 신문사(조선, 중앙, 동아, 한국)와 3대 지상파 방송국(KBS, MBC, SBS) 또 경제지 한 개사 등 모두 8개 언론사의 차장이상 데스크를 상대로 뉴스 gatekeeping(뉴스를 취사선택하는

과정)에 미치는 YTN의 영향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각 언론사마다 차장 이상 데스크 20명씩 모두 160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해 이 가운데 최종 135명으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하여 각 문항별로 분석을 했다.

몇 가지 중요한 항목에 대한 통계결과는 아래와 같다.

3. 분석 결과

1) 신문사 뉴스 데스크들이 가장 많이 보는 채널은 YTN

	신문사	A방송	B방송	C방송
A방송	5(7.7)	.	9(50.0)	3(20.0)
B방송	17(26.2)	17(89.5)	.	7(46.7)
C방송	8(12.3)	0(0)	0(0)	.
YTN	35(53.8)	2(10.5)	9(50.0)	5(33.3)
합계	65(100)	19(100)	18(100)	15(100)

〈표 1〉 뉴스 데스크들의 주 뉴스 채널 단위:명(%)

위 〈표 1〉에서 보듯이 신문사 뉴스 데스크들의 절반 이상인 53.8%가 YTN을 가장 많이 본다고 응답했고 방송사 데스크들 가운데서도 B방송의 경우 다른 지상파와 같은 수준으로 YTN을 주 뉴스채널로 지목함으로써 YTN이 이들 언론사들의 주요뉴스 채널 가운데 하나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매우 신뢰성 높은 채널로 평가

	신문사	방송사	합계
매우 그렇다	24(40.7)	29(55.8)	53(47.7)
그런 편이다	1(1.7)	1(1.9)	2(1.8)
보통이다	3(5.1)	22(42.3)	25(22.5)

〈표 2〉 YTN 보도의 신뢰성 정도

위 〈표 2〉에서 보듯이 이들 언론사 뉴스 데스크들은 YTN의 보도의 신뢰성에 대해 절반 가까운 47.7%가 '매우 신뢰성이 높다'고 응답함으로써 YTN의 신뢰성을 높이 평가했다.

3) 중요 속보를 아는데 큰 도움

	신문사	방송사	평균
긴급한 중요 속보를 놓치지 않는다	4.27	3.9	4.14
중대한 뉴스가 무엇인지 안다	3.45	3.34	3.41
진행 중 뉴스를 업데이트한다	3.76	3.56	3.67

〈표 3〉 YTN이 도움이 되는 항목과 정도 (5점 만점)

언론사 뉴스 데스크들은 YTN의 유용성에 대한 평가에서 중요한 속보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였다.

4) 뉴스 게이트키퍼에 유용

	신문사	방송사	합계
아주 도움이 된다	2(3.1)	0(0)	2(1.8)
도움이 된다	37(57.8)	25(50.0)	62(54.4)
대체로 도움이 된다	15(23.4)	14(28.0)	29(25.4)

〈표 4〉 YTN이 게이트키퍼에 도움이 되는 정도

뉴스 데스크들 가운데 80% 가까이가 그들이 뉴스를 최종 취사선택하는 게이트키퍼과정에 YTN이 도움을 주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5) YTN 활용 비율 계속 증가

	신문사	방송사	합계
많이 증가하였다	9(14.5)	3(5.8)	12(10.5)
증가하였다	37(59.7)	25(48.1)	62(54.4)
변함없다	14(22.6)	22(42.3)	36(31.6)

〈표 5〉 YTN의 활용 비율의 증가 정도

언론사 뉴스 데스크들의 65%가량이 5년 전보다 뉴스 게이트키퍼과정에 YTN을 활용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함으로써 YTN의 영향력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4. 결론

이상 몇 가지 설문조사 항목에서 드러나듯이 YTN은 이들 뉴스 전문가 그룹들로부터 명실상부한 24시간 뉴스 전문채널로 그 신뢰성과 속보성 그리고 유용성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

이들 언론사 뉴스 데스크들은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YTN이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장중계와 심층 취재물 보도를 강화해야한다는 지적도 아끼지 않았다.

방송 10년을 맞아 이처럼 YTN의 대외적인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YTN의 구성원 모두가 큰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고 더욱 수준 높은 '뉴스 제품'을 만들어 24시간 뉴스 채널로서의 독보적인 위상을 굳게 다지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파워 인터뷰 - 해외사업팀 2인

YTN을 세계적인 콘텐츠 프로바이더로..

이 월 연

2003년 YTN이 중국시장을 겨냥해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할 때, YTN 중국사업팀에서 일을 시작했다. 중국 법인의 설립, 중국 법인과 한국 파트너와의 제휴 등 중국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지원했다. 중국사업팀이 해외사업팀으로 바뀌면서 중화권 지역의 콘텐츠 유통도 담당한다.



A1 사실 YTN은 제가 다니는 첫 회사다. 회사의 모든 일은 학교공부만 했던 저에게 다 새로운 일이다. 이런 배우면서 일하는 과정은 저에게 모두 재미있는 일이고 한편으로는 모두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특히 현재 담당하고 있는 콘텐츠 유통 업무에 대해서는 경험이나 노하우가 하나도 없어서 스스로 걱정도 많이 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YTN은 체계적인 콘텐츠 유통 업무가 활성화되지 못해서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조차 부족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아마도 사내 다른 부서에도 신세를 많이 질 것 같은데 꼭 많이 도와주시길 바란다. 이 기회를 빌려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A2 저는 아직 콘텐츠 유통 업무의 입문자라서 전문적인 평가를 못 할 것 같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지런히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으면 콘텐츠 유통 사업은 돈을 별로 안 들여도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인 포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보다 우선 우리 팀에 새로 오신 김지연 선배에게서 많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저런 실전을 통해 노하우를 쌓아 YTN의 콘텐츠뿐만 아니라 영화, 드라마 등 다른 콘텐츠의 소유자도 우리를 찾아와 유통시켜달라고 하게끔 만들고 싶다.

A3 국내에서는 YTN이 굉장히 공신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언론매체다. 대한민국에서 YTN을 모를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한국의 유일한 24시간 뉴스채널인 YTN이 CNN, 로이터 등 다른 외신사처럼 해외에서 특히 중화권 지역에서 이름이 잘 알려지지

1. 일 하면서 재미있는 일이나 어려운 점은?
2. 콘텐츠 유통 사업의 전망과 개인적인 포부는?
3. 향후 해외사업의 방향에 대해...
4. 2005년 새해 목표는?

못하고 있는 현실은 정말 아쉬운 일이다. 그만큼 그 동안 우리 YTN이 대외적인 홍보, 국제적인 교류에 대해서 큰 비중을 두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앞으로 YTN도 글로벌 마케팅에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특히 뉴스, 엔터테인먼트 등 여러 장르의 콘텐츠 유통, 또한 국제적인 행사를 통해 YTN의 이름이 세계적인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한다.

A4 새해의 목표는 딱 두 가지다. "Money" + "Honor"
Money : YTN, YTN Star의 좋은 프로그램이 자료실에서만 쌓이지 않고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Honor : 재작년에 우리 팀의 전신인 중국사업팀이 특별상 탄 적이 있다. 2005년에도 해외사업팀의 이름이 연말 시상식에 꼭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김지연

콘텐츠 해외 유통 업무를 맡고 있다. 주로 해외 프로그램을 구매하거나, 국내 프로그램을 해외로 판매하는 일이다. 97년 학교를 졸업하고 꼭 이 일을 시작해, 2003년 1월에 YTN미디어에 입사했다. 올해 본사의 해외유통 업무 통합 계획에 따라 해외사업팀에 합류했다. YTN과 YTN Star, 코미디TV의 각종 콘텐츠를 해외로 판매하는 일에 주력할 것이다.

것이다. 많은 제작비를 들여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지만, 대개는 해외수출용으로 부적합한 것들이다. 한류 바람을 타고 지금 해외에서도 YTN Star 콘텐츠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이것 역시 오래 지속될 수는 없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수익모델을 만들기에 부족함이 있다. 콘텐츠 유통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제작된 콘텐츠의 재활용 수준에 머무르는 현재의 시스템에서 더 나아가 세계 시장을 겨냥한 콘텐츠 제작을 병행해야 한다. 그리하여 완성도 있는 프로그램 하나로 회사의 브랜드 혹은 한국이라는 브랜드를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많은 난관이 있겠지만, 앞으로 그러한 사업 모델을 구체화하고 실행해 나가는 것이 나의 포부이기도 하다.

A3 YTN이란 회사에 대해서는 이제 알아 나가는 중이고, YTN 안에서 해외사업팀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아직은 프로그램 해외 유통 업무의 틀을 잡아나가기에도 바쁜 상황이지만 향후 YTN이 세계적인 콘텐츠 프로바이더로 성장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콘텐츠를 제작해야 할 것인지, 해외에서 YTN의 브랜드를 어떻게 알릴 것인지 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역량과 노하우를 쌓아야 할 것이다.

A4 올해로 직장 생활 9년차다. 이제는 이 분야의 전문가라는 말도 종종 듣게 되는데, 전문가라면 끊임없이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문가라는 호칭이 부담스럽지 않도록 콘텐츠 유통 업무 외에도 관련 사업에 대한 경험을 넓히고, 틈틈이 공부도 많이 하고 싶다.

A1 재미있는 일이라기보다는 성취감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이다. 타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여자들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실제로 해외에서도 이 분야 인력의 대부분이 여성이다) 특별히 어려운 점을 꼽자면, 사업적인 관점에서 봐야 할 텐데, 이제까지는 콘텐츠 유통이라는 분야가 회사 내에서 부가 사업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했고, 그래서 그에 마땅한 정책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니 매출 확대나 사업 확장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없어 수동적 마케팅 활동을 해왔던 것이 힘들었다.

A2 모두가 콘텐츠를 이야기하고 있다. 분명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고 거기에 적극 뛰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아직 상품성 있는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사 원 동 정

김관상 마케팅국장 '세계의 24시간 TV뉴스채널' 출간

김관상 마케팅 국장이 '세계의 24시간 TV뉴스 채널'을 펴냈다. 이 책은 TV뉴스전문 채널이 추구하는 공익성과 수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현실적인 고민과 뉴스채널의 전망까지를 현장인의 눈으로 꼼꼼히 살피고 있다. 또 CNN, BBC News24 등 세계 뉴스전문채널들의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정

리해 방송개론서의 역할에도 충실했다.

백선기 차장 카메라기자협회 YTN 지회장 선출

보도국 영상취재부의 백선기 차장이 한국 TV카메라기자협회 YTN 지회장으로 선출됐다. 이와 함께 백선기 차장은 1월 11일 한국 TV카메라기자협회 감사로도 선출됐다.

포토뉴스

취재차량 교체



취재차량이 뉴EF소나타로 2월부터 교체됐다. 교체와 함께 차량 디자인도 새롭게 바뀌었다. 뉴EF소나타는 앞으로 3년 동안 취재현장에서 사용할 예정이다.

행운목



10년마다 꽃이 핀다는 행운목, 19층 보도국 입구에 행운목 꽃이 활짝 폈다. 가득한 행운목 꽃향기처럼 개국 10년을 맞은 YTN에 행운이 가득하길...

지구촌 한민족 뉴스 네트워크



▲해외방송팀 사원들 (맨 왼쪽이 필자)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한다

YTN 해외방송 백년대계를 향한 첫걸음인 '재외동포뉴스' <목요일 04:30, 13:30, 22:30>를 제작하는 해외방송팀원들이 이십전심으로 공감했던 모토(?)였으리라.

오는 3월18일 첫 돌을 맞는 'YTN 인터내셔널'은 지난 한 해 동안 바로 이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느라 이른바 참살이(헬빙)를 잠시 미뤄뒀다면 과장일까? 일부 논란(?)은 있었지만...

지금은 높은 시청률을 선보이면서 YTN본방송에서도 방송되고 있지만 초창기 해외에서만 시청이 가능했던 터라 해외방송팀원들은 실제 음지에서 절치부심해 왔다.

'명색이 해외 670만 재외동포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데'라며 팀은 지난해 9월 중순 과감히 전가의 보도를 빼들었다. 바로 화상전화를 활용한 방송 제작이었다. 다양하고 실험성 짙은 방송 제작 시도는 현재 활용되고도 있지만 YTN본방송에 나름의 영향을 끼쳤다고 자부한다.

어찌 보면 시대적 필요로 팀은 생겨난 것이 아닌가 싶다. 인터넷이 만개하면서 온라인 영상전송이 실용화돼 방송에까지 인터넷 기술이 적극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외동포뉴스는 내용적으로 우선 해외에 흩어져 있는 한국인, 한인, 동포, 고려인 등 한국인의 피를 가진 이들과 이들이 몸담고 있는 사회에 대한 소식을 전달하고 있다. 하지만 지구촌 한인 네트워크라는 큰 주제를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뉴스를 적극 발굴하고 있다. 동포사회에 직간접으로 연계가 되는 주제라면 언제든 누구로부터든 고견을 기다리고 있다.

지구촌 한국인 네트워크 구성하는데 자부심 커

물론 차츰 영역을 넓혀가야 되겠지만 팀은 '한국인 네트워크'에 첫 삽을 떴다는데 자부심을 갖고 있다. 재외동포재단 등 일부 유관 기관들이 동포사회 결집을 위해 백방으로 뛰고는 있지만 사실 한국어를 활용한 방송 '만큼 큰 효과를 거둘 수는 없다. 재외동포뉴스는 여기에 이만, 취업 관련한 최신 뉴스와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있다.

비록 주간물로 제작하고는 있지만 사실 워낙 각지에 통신원이 있다보니 가끔은 특종에 버금가는 대어를 낚을 가능성은 상존한다. 지난해 6월엔 미국 LA 모 한인 당구장에서 총격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운이 좋았던지 마침 인근에 있던 LA 통신원이 전송해온 생생한 영상으로 생방송에 참여해 신속한 방송참여의 전범을 보여준 적이 있다.

또 12월 초순 어느 날 퇴근길에 YTN 몽골 통신원으로부터 제보가 하나 들어왔다. 김정일 위원장이 친인척에게 피살됐다는 기사가 현지 신문(러시아·몽골 유력 일간지)에 실렸다는 내용이었는 데 물론 특파원 기사가 아니라서 신중을 기할 생각이었는데 통신원은 아예 신문자체를 카메라로 캡춰해 이메일로 전송해와 첩보에 신빙성을 불어넣어 주기에 충분했다.

네티즌 사이에야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지만 방송에 참여

하는 차원에서는 그 의미가 클 수밖에 없다. 워낙 설이 많은 북한 내부 사정이라 사실 확인까지 좀 더 인내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결국 기사화는 안됐지만 당시엔 세계적인 특종을 낚을 법한 제보가 아니었나 한다. 반대로 오보였다면 세계적인 망신살이었겠지만...

생동감 있는 방송 일궈내

방송 기술적으로는 앞서 언급했듯 온라인 화상전송으로 갈수록 생동감 있는 방송을 할 수 있게 됐으며 조만간 미국 서부와 캐나다로 한정됐던 화상전화를 뉴욕, 런던, 호주에까지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얼마 전엔 지진해일 재앙을 맞은 남아시아 지역 소식이 현지 통신원을 통해 방송된 적이 있는데 본인이 지진발생 수주 전 현지를 방문해 엄선(?)한 통신원들이어서 해외 통신원의 역할을 새삼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또 특파원과 달리 현지에 오래 살면서 현지 요인들과의 친분을 활용한 취재 및 방송참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요즘 들어선 지난해 한국 YTN 본사에서 교육을 받고 돌아가 '이젠 초고라도 기사를 쓸 수 있게 됐다'는 자신감 있는 소식도 들려와 이젠 어느 정도 통신원들이 정착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

질적 측면에서 다소 부족하지만 지구촌 곳곳의 현장감 있는 소식을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특파원을 증파하기도 쉽지 않는 회사 여건을 보면 충분한 대안으로 생각된다. 지금은 매주 한차례 방송하고 있지만 통신원 확장을 통한 뉴스원 확대가 이뤄지면 주 2회 방송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앞으로 가능하면 생방송도 시도해 볼 생각이다.

조승희 (해외방송팀)

